

조계종 개혁 10주년 기념 좌담 '개혁을 딛고 화해와 미래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기자협회 공동주최

화합 기반으로 밑그림 다시 그려야

조계종 개혁 10주년을 맞아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종단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도각스님, 법안스님, 성태용 교수, 위영란 국장, 윤남진 사무처장

〈참석자〉

- 도각스님 (조계종 총회의원, 사자암 주지)
법안스님 (총회의원,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우리선언 이사장)
위영란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국장)
시화: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개혁과정에 비판세력 없어 아쉬워

1994년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가장 큰 소망은?

도각= 94년 당시 가장 고려했던 것은 종단 내 제도개선보다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불교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였다.

법안= 94년 개혁은 서의현 체제가 삼선을 염두에 두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현실에 사부대중이 분노하면서 종단 내부를 들여다본 계기였다.

94년 이후 종단개혁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위영란= 94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서의현 체제 반대 제도적 정비에 급급했다. 즉 서의현 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성태용=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만한 여유도 없이 승단 존립에 급급했던 것 같다. 개혁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개혁 세력

이 종단 내에 들어가도 별 수 없다는 무력감이다.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큰 밑그림을 그어야 한다.

중양총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전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책임성과 대표성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법안= 총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종단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답을 많이 알고 있지만 추진할 동력이 없다.

도각= 총회가 제파로 짜여져 제파들끼리 어떻게 자리를 나눠먹는 가 구조가 됐다. 이런 문제는 종단 구성 자체가 문중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위영란= 서의현 체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이제는 총회가 됐다. 집단 이기주의화되고 파벌주의화 됐다. 총회는 정치집단화될 수밖에 없지만, 파벌이 아닌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성태용= 출가 수행자들은 그에 맞는 위치가 있다. 스님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 개혁 10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라도 판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른 기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운영 신도 참여로 투명해져야

재가자들의 종단 참여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줄 현실적 방안은?

도각= 결국 의식의 문제다. 성직자들이 신도와와의 관계를 교회의 대상으로 보는 고정된 시각이 있다. 불교는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산배를 하는 예법상의 문제도 있다.

법안= 스님들은 주인의식이 강하다. 재가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강하다. 가톨릭의 경우 집합만 신부가 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한다.

찰 운영에 반드시 신도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스님들 뿐 아니라 교단도 더 건강해진다.

종단이나 사찰의 재정구조에 대한 생각은?

성태용= 지금까지는 사찰 유지에 신도들이 돈을 냈지만 환경, 통일 등에 신도들이 돈을 내게해야 한다.

위영란= 문화는 산업이다. 재원 창출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 외의 방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도 산업화 될 수 있다.

중양총무기관들이 너무 신만하게 구상돼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과 상생 측면에서 사면해주지는 것이다. 물론 교훈으로 남겨두는 것에도 일리는 있다.

도각= 어떤 명분으로든지 종회 의사장족수를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사면대상자들이 진솔하게 나왔으면 한다.

사면대상자 진솔함 보여주길

성태용= 사면복권이 이뤄지더라도 여법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참회기 먼저 이뤄져야 한다.

위영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할 시점에 빠르게 적용했는지도 중요하다.

2010년까지 향후 6년간 조계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요인은?

성태용= 사부대중 공동체가 원활하게 화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비구니 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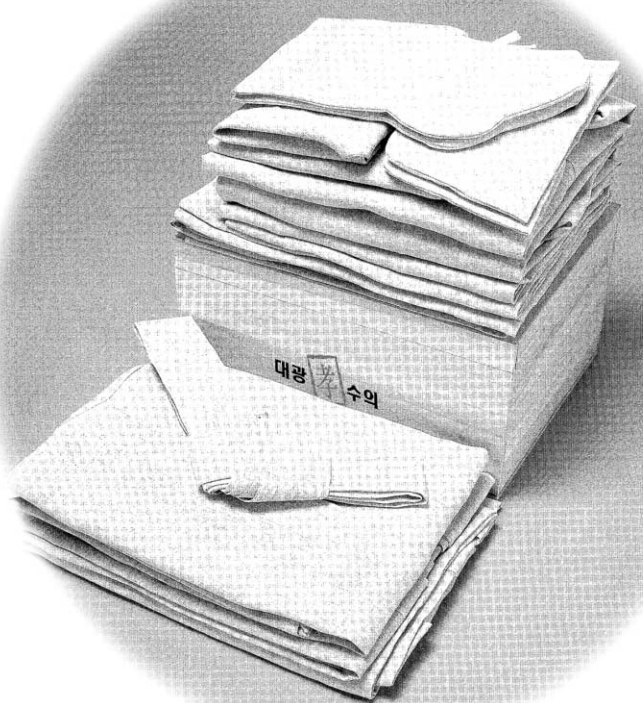
위영란= 불교계가 두려워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불자수 감소다. 유사수행법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불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법안= 승단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혁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도각= 현 시기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 종단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 또 각 종단마다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한 종파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상모음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Table with 4 columns: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Lists various types of sutra gift certificates and their prices.

윤달 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어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윤달이 덩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금년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상배만을 골라 한울한울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상배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 매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도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종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